

한바탕 놀아볼까? '힙 스페스타'

세민전, 그 화려한 개막!

세계민속예술제·세계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25일(화)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강정훈(동양·중국어 08)과 대외교양부총장(EDS) 이나운이 김아나(서양·영어 01)와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첫 무대를 연 것은 서울배움터 학생과 동아리 외국인부대였다. 외국인부대는 이날 김경호의 '나우(NOW)'와 제라르의 '오라' 등을 부르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인테스 민속음악단 뉴한자의 무대가 이어졌다. 뉴한자는 총 4명으로 구성된 민속악단으로 개막식에서 총 4곡을 연주하며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세 번째로 펼쳐진 난타는 대형 무대에서 결혼식과 혼전 준비과정의 에피소드들을 각종 사물을 이용해 소리로 표현한 공연이다. 공연 중간 신부와 신랑과 관객들 가운데 즉석으로 선택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신랑은 무지개 머리에 맞춰 앉아 자꾸 떨어지는 관객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준 신랑 이기태(동양·중국어 03)은 "보통 3등정도만 당원인 느낌"이라며 즐거워했다. 이어 그는 "신부에게는 (나 같은 신랑을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미안해했다. 신부도 밝힌 이해정(동양·마인어 02)은 "약간 창피하고 멋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이해정장은 개막식에 대해서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초대가수인 알렉산더와 박해경의 공연이 이어졌다. 외대 출신의 가수 알렉산더(동양·중국어 02)은 "교실에서 하는 공연이라 설렘과 긴장으로 더욱 뜻 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세민전(동양·중국어 03)은 "행사 초반에 사람이 너무 적었던 점이 아쉽다. 그러나 공연 내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열화와 행사진행 때문에 공연들이 매끄럽게 연결됐다"며 개막식을 평가했다.

밀려오는 감동! 주재할 수 없는 웃음! 외대 O.S.T 가요제!

"우와! 다 끝났는데 아직도 밀려네요." 지난 25일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열린 '외대 O.S.T 가요제'에서 1등을 차지한 방승현(서양·이태리어 09)은 우승소감이다. 영화 클린 주재곡 'Reflection'을 부른 방 승은 "노래를 할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1등은 예상도 못했었다. 같은 과 학생들도 두명이나 참가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라고 덧붙였다. 교실에서 상악을 배웠다는 그의 음성은 노천극장에서 모인 250여명의 학생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방 승의 뒤를 이어 2등은 이기찬의 'place'를 부른 한동훈(심장·무어 08)이, 3등은 영화 컨스퍼서 주재곡 'I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른 유상현(서양·영어 02)이, 인기상은 문화준의 'C'상상의 아리아'를 부른 권영태(서양·이태리어 03)군이 차지했다. 특히 화려한 무대 매너와 특수한 분장으로 관찰하는 학생들과 심사위원단을 매료시켰던 권영태군은 "평소 문화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C'상상의 아리아를 부르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기상을 탄 권 군에게는 문화상품권이, 1등에게는 디지털카메라가, 2등에게는 MP3·CD플레이어가, 3등에게는 포터디지털카메라가 주어졌다.

외대만의 작은 지구촌, 월드빌리지

'외대만의 작은 지구촌, 월드빌리지'가 지난 24, 25(목) 양일간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동양아대 소속의 일본어, 인도어, 중국어 과와 일본어과에 속한 재일교포 모임이 참여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중국어과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버블티, 월병, 호두과자 등을 판매했다. 버블티를 마시고 있던 김민규(동양·일본어 03)군과 박인혜(동양·일본어 03)장은 "홍보가 많이 마셨는데 사람들이 세민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학기 때만 비교하면 너무 한산해요"라며 아쉬워했다. 월드빌리지 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일본어과 내 재일교포 모임의 '버블티장'을 찾아냈다. "보고싶어요! 싸고 예뻐요! 와서 입어보세요!"라고 어색한 한국어로 열심히 외치는 김지은(동양·일본어 00)장은 "많이 팔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라며 즐거워했다. 한창을 고르자 예쁜 티셔츠를 사기엔 장나라(서양·서반어 01)장은 "싸고 독특한 옷이 많아서 매년 버블티장 할 때마다 꼭 사요"라며 만족해했다. 인도어과에서 만드는 카레떡집으로 월드빌리지내에 카페 냄새가 가득했다. 연재신(동양·인도어 03)군은 "1학기 때 했던 월드빌리지를 2학기 때 다시 해서 학생들이 익숙해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번 월드빌리지는 해당 장소에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서양아대 소속 과들이 참여하지 못해 반쪽 월드빌리지라 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월드빌리지와 외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행사임은 분명해 보였다.

- 힙 스페스타 기획취재단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뜨거웠다!

서울배움터를 뜨겁게 달궜던 힙 스페스타(HIPS FESTA)가 지난 25일(화)부터 26일(금)까지 나흘간 긴 여정을 미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민속예술축제(세민전)와 세계영화제를 벌거로 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꿈꾸는 비상구, 상상도 라는 신화의 행사'를 주제로 세민전과 힙 스페스타(HIPS FEST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번 행사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족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세계주류전시회 도우미를 맡았던 이경모(서양·영어 03)군은 "준비위원들만 참여하고 막상 실장직인 학생들의 참여가 낮았다"고 말했다고 월드빌리지를 준비했던 이금(동양·일본어 01)은 역시 "월드빌리지 개막 후 둘째날부터 행사를 잡는 학과들도 있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적었다"고 말했다.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지켜본 서양아대 노어과 과회장 강화성(01)군은 "매년과 달리 대학생활의 난관을 꼭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지 학생들의 참여가 적은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반면 최보라(심장계열 03)장은 "폐막제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를 주관한 총학생회(총학) 부총장 조해원(심장·행정 09)군은 "세민전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는 비이문계열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만한 행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과 부대행사들을 대중에게 비해 많이 준

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폐막제 공연과 관련 해 이유미(서양·영어 01)장은 "무대장치가 빈약하다. 예년과 크게 달랐던 것이 없다"고 말한 반면, 권보경(심장계열 03)장은 "대학축제의 딱 어울리는 초대가수를 섭외한 것 같아 좋았다"고 밝혔다. 폐막제 사회를 맡은 최운영(동양·이러어 01)장은 "가수 이적도 오고 학생들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공연에는 만족한다. 예년과 달리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가지 않고 함께 해줘서 너무 기쁘다. 하지만 공연 프로그램이 매년 반복돼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영화제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경아(서양·영어교육 01)장은 "주인과 영화와 흥행을 봤는데, 자막처리할 때의 맛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좋았다"고 밝혔고 강화성군은 "행사기간 동안 심야영화회가 계속 진행돼, 이문동에 사는 학생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영(서양·독일어교육 00)장은 "보고 싶은 영화는 많았는데 심야에 해서 늦게까지 볼 수 없었다"며 심야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학 문화과학 전문영(서양·서반어 00)장은 "이번 두 행사를 모두 총학에서 맡았으니, 영화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를 총체적으로 주도했던 부총학생회장이자

준비위원장인 강정훈(동양·중국어 08)은 "총학이나 재학생들의 실력이 나아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지만, 비어준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면서 "세민전과 세계영화제를 동시에 개최한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라 많이 미숙했지만 앞으로 외대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언급했다.

많은 아쉬움과 미숙한 점을 넘겨주면 이번 행사보다 외대만의 젊음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던 행사인 것만 같은 확실했다. 강 군의 말처럼 힙 스페스타(HIPS FESTA)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외대인의 종합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

조해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효성

당신이 모르는 95%의 효성이 있습니다. 사실 모르셔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밤 새 포근히 잠자웠던 이불속에서, 교정을 거니는 당신의 신발과 가방속에서, 오늘 아침 타고온 지하철에서도 당신은 매일매일 효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실과 도서관, 학생회관 로비나 은행, 편의점에서도 언제나 효성의 기술은 당신을 편리하게 합니다. 친구와 즐겨찾는 영화관, 테마파크에서도 즐거운 당신 곁에는 늘 효성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 생활의 95%는 효성**이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초 산업인 섬유에서부터 첨단산업인 정보통신까지 효성이 이끌어갑니다

섬유 부문
아름답게 탄생한 의류, 가방, 신발, 소품부터 세계적인 패션기업으로 효성을 이끌어가는 핵심인 섬유 부문입니다.

화학 부문
최첨단 TPA에서 범용수지까지 원료에서 제품까지 이르기까지 수직통합을 통한 종합화학제품을 생산합니다.

전력 부문
수력에서 핵발전, 환경친화적인 이르기까지 풍요한 지구촌 발전에 앞장서는 종합전력회사를 지향합니다.

공학 부문
세계적인 기술훈련을 가진 수송부터 수송 관련 건설, 임직을 담당하며 세계를 우리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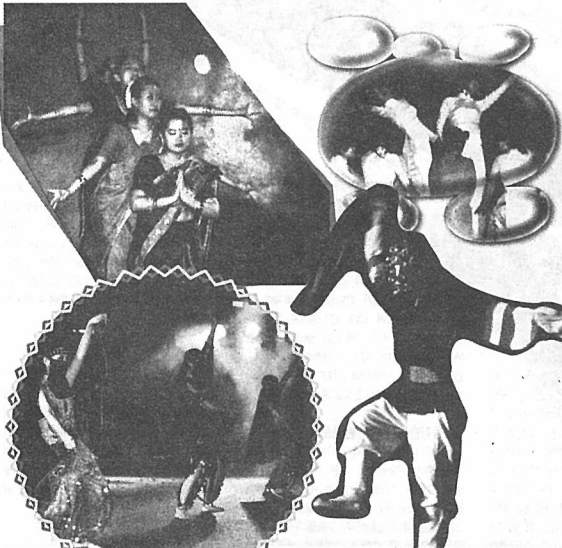
에너지 부문
전기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Total Energy Solution Company로서 종합에너지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금융자동화기기에서 스토리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부문까지 정보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민전 피막식

세민전 공연 전과 후! 그리고 대기실의 모습을 파헤친다!!



"원해서 하게 된 오프닝 공연이지만 떨리고 긴장되는 것은 어느 때와 다르지 않네요." 지난 28일(금) 서울매우 터 노환극장에서 펼쳐진 세계민속문화예술축전 개막식에 참가한 서반아어과 라틴음악 소모임 로스노비오스 강영근(서양·서반아어 02)군의 말이다. 로스노비오스는 임시 학생총회가 끝난 후 한 의대종문연합의 공연 중간에 스페인 전통 기타와 드럼을 다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긴장감을 달랬다. 개막 5분전에는 입장발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세심함을 보였는데 공연 후 이해정(서양·서반아어 02)장은 "너무 부듯하고 연습한대로 공연이 잘 돼 너무 기쁘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공연은 볼리비아의 상악악 '해조낭스'이다. 비교적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 해조낭스는 공연을 마친 뒤 장경희(서양·볼리 02)장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 없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라면서 "악기소리가 너무 커서 상송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어과 프리마의 공연이었다. 공연을 앞두고 박재홍(서양·네덜란드어 03)군은 "처음하는 공연은 아니지만 떨리지는 않고 부담없다"라며 "즐거다니는 기분으로 공연하렵니다"라고 공연 전 각오를 밝혔다. 프리마는 공연 5분전까지도 밝은 표정으로 사진도 찍고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보여 긴장이 거의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대 바로 옆에 한세진(서양·네덜란드어 03)장은 "의외로 떨었고 그새사인지 악간의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부듯해요"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어 중국어과 원어 노래 '나연침'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전 정정국(동양·중국어 02)군은 "이번 세민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03 학년 중심이지만 믿음직해요"라며 공연에 기대를 나타냈다. 총 3곡을 펼쳤는데 관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단연 박지은의 '성인식'을 중국어로 부른 것일 것이다. 남자 댄서들의 표정이 아쉬웠다는 평가.

다음 공연은 태국어과 춤과 '타타타'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들은 '타타타'라 불리는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공연 전 '사람들이 많이 너무 떨려요'라고 말한 심수영(동양·태국어 03)장. 그러나 특유의 태국민속 춤의 느낌을 잘 살리며 많은 환호를 받았다. 이정은(동양·태국어 03)장은 공연 후 노래에 대해 "거분하다"며 "사람이 많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초대 가수 이적의 노래가 끝나고, 베트남어과 연합춤의 전통 공연이 이어졌다. 전통의상인 아오자이와 눈이 라 불리는 모자를 쓰고 입장에 눈길을 끌었다. 나예정(동양·베트남어 03)장은 "초대 가수 공연 이후라서 부담스러웠다. 연습도 모자랐던 것 같아 실수도 한 것 같아 아쉽다"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마인어과 원어노래로 꾸니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을 마치고 이은정, 송가영, 채원진, 이해정(이상 동양·마인어 02)장은 "재미있고 외대의 특색을 살리는 공연을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생긴다"며 입을 모아 기뻐했다.



다음은 노어과 원어 노래로 캄바니아의 노래가 이어졌다. 공연 전 박종화(서양·노어 03)군은 "여러차례 공연을 해와서 떨리지는 않는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기분이 좋다. 또 외부공연과는 느낌이 다른 것을 보니 흥구경의 이점을 이해가 안 것 같다"며 웃으며 말했다. 공연 이후에는 "약간 실수를 해서 만족스럽진 않다"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스칸디나비아어과 춤과 팀웨임스의 무대였다. 공연 전 기본을 맡아 최지연(서양·스칸디나비아어 02)장은 "모든 민속춤들이 하는 공연만큼 타와 공연과 비교되기도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기에 자신있어요"라며 웃었다. 다양한 퍼포먼스의 멋진 동작으로 관중학생들의 호응을 받은 팀웨임스의 전효리(02)장은 "잘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 특히 관객들 반응 때문에 더 신나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라고 만족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인도어과 시리스의 공연. 인도 전 동북지방 사리와 각종 악세사리로 치장해 입장할 때부터 더욱 눈길을 끌었다. 공연 전 박정명(동양·인도어 03)장은 "장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라며 긴장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공연 후 김지은(동양·인도어 03)장은 "무대에 직접 올라 하는 연습이 부족했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라고 말했다.

이어진 공연은 이번 공연에서 유일한 국산 무대, 불산탈춤 공연이었다. 가빈국 연구회 홍희정(동양·일본어 01)장은 "세민전에서 유일하게 한국적인 공연인 만큼 다른과에 밀리지 않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각오를 밝혔다. 공연이 끝나고 말뚝이 역을 맡

은 안효진(서반·영어교육 02)군은 "단정 깔끔게 보는 기분으로 입혔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은 일본어과 원어 노래 '소라'의 무대였다. 공연 전 구모를 외치며 힘차게 입장한 소라는 먼저 일본 여성 그룹 스피드의 노래를 불렀다. 이어 일본 남성 그룹 아라시의 노래를 부르며 재밌는 표정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스피드의 노래를 부른 진혜영(동양·일본어 03)장은 "무대배경이 좋았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라시의 노래를 부르며 가장 열기적인 표정으로 즐거움을 선사한 김효민(동양·일본어 03)군은 "무대에 올라가 '소라'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연은 너무 즐거웠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여준 것 같습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음 공연은 서반아어과 플라멩고 춤과 '두나'의 무대였다. 정정국(서양·서반아어 02)장은 "공연은 잘됐서 기본이 박보람(서양·서반아어 02)장은 "공연은 잘됐서 기본이 좋아요"라며 "하지만 공연 시작자체가 예정보다 2시간이 나 지나지는 등 행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아쉽네요"라며 진행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후 아랍어과 아랍 문화 연구회의 전통 춤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전 만난 삼재명(동양·아랍 03)군은 "약간 긴장되고 떨리네요"라며 "이번 공연이 우리 소모임의 올해 마지막 행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을 마치고 윤유리(동양·아랍어 03)장은 "기쁘기도 하고 약간은 허무해요"라며 "관람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아쉬워요"라고 말했다.

마지막 공연은 노어과 춤과 '라스트드레드'의 무대였다. 멋진 코사르 댄스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며 세민전을 마무리한 라스트드레드의 장우원(서양·노어 03)군은 "마지막 무대라 사람들이 많이 한 것 너무 아쉽네요"라며 "장시간 대기하다보니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외대만이 할 수 있는 축제인 세계민속문화예술축전. 행사가 지면해 시작할 점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외대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에서 지난 어떤 세민전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박승열 기자 park864@hanmail.net

금강산문화사업과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100만 대학생 참여 캠페인

금강산, 개성 평화민족동산

100만 대학생

평화의 숲만들기

"시작은대학생이, 참여는은 국민이 함께"

평화민족동산 대학생 평화의 숲 조성 및 주시경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100만 대학생들은 금강산과 개성에 조성된 "평화민족동산"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실수를 직접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지며 역사에 그 이름의 뜻이 길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2003.09.23 ~ 2003.11.15

평화민족동산 대학생 평화의 숲 조성 및 주시경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100만 대학생들은 금강산과 개성에 조성된 "평화민족동산"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실수를 직접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지며 역사에 그 이름의 뜻이 길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민족동산 유실수/전국대학생/자유단체가 함께 합니다.

양심없는 외대인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모두가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14000 외대학우의 이름으로
매일 책 치우기를 하겠습니다.

민족자주연호
외대화보

4박 5일간의 북북 역사유적 탐사기

평양, 그 중심에 서다

"평양이다." 나머지 반쪽의 우리 조국을 알고자 비행기에 올랐던 청년학생들, 드디어 북녘을 넘는다. 지난 22일 남북의 청년학생으로 꾸러진 '북북 역사유적 탐사단'원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섰다. '평양'이란 두 글자와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 이곳은 정말 평양이다. 이북의 땅을 밟는다는 사실에 말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가슴 벅찬 감격에 눈물 흘리는 이도 있었다. 4박 5일 동안 일행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북측 안내원 선생들과 두 손 부여잡고 '반갑습니다'를 외쳤다. 순안공항에서 근무하는 순악(22) 안내원 선생도 "반기는 걸 아무 다 말할 수 없습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전직 만년노 할 것을 이제야 만난 것이다.

황기차면서든 한기로든 평양시민들

운전석이 오른쪽인 다소 낡은 버스에 올라탔다. 평양시내를 가로질러 속소인 청년호텔로 향했다. 사람들이 창밖의 평양시내와 시민들을 뚫어 보면서도 평양은 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평양의 거리는 남측의 지난 70년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 활기찬 모습이었다. 책꽂이와 힘겨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동네를 누비며 뛰어노는 아이들, 자전거의 패달도 힘겹게 밟는다.

평양은 화석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인도에 커다란 나무들로 그늘이 지고 도로는 코스모스와 아가자기형 조경으로 아름답다. 시내 곳곳에는 버드나무가 우거진 공원이 조성돼있다. 낮고 작은 건물이 거의 없고 화석같이 도는 교통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아파트 빌딩이 아가자기형 화분들로 꾸며져 있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넓은 도로로 웅장한 건축물, 너무나 넓은 공간. 건물 곳곳에 붙여진 붉은 색의 선장적인 문구들, 사막에 보일 법도 하지만 아름답게 꾸민 조경과 '불고기집', '리빙' 등 미소짓게 만드는 간판들, 활기찬 평양시민들로 평양 시내는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다.

평양 1일

어린이의 재능 펼쳐라
평양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민정에 학생 소년궁전이다. 소년궁전은 어린이(만7세~만17세)들에게 '소조활동'이라 불리는 미술, 음악, 체육, 과학 등 분야의 피아활동을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다. 사예실에서 만난 리명일(중학, 14) 군은 한글 공부를 연습하고 있었다. 사예를 시작하자 1년이 됐다는 리 군은 자제되는 시험때문에 힘들었다. 큰 글을 그리고 또 고친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술실의 석고상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냥의 석고상이 아니라 북측인물의 얼굴을 따낸 석고상이다. 소년과 반신상 연습을 끝낸 학생들이 주로 하는 그림도 사냥화가 아닌 한국화다. 기본

적인 연습과정을 거쳐 우리 미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었다. 체육무용실이 가장 감동적이었다는 탐사단 김민희(청원대 00) 씨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유종하고 화려한 건물과 '학생궁전'이란 건물 명칭에서 어린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공연발표도 볼 수 있었다. 뜻밖에도 평양 대학생들이 열렬한 환호로 맞아주었다. 공연장을 빠져나갈 때도 "우리는 하느님", "조국통일"을 배우고 함께 남북이 하나되어 일 모아 외쳤다. "통일된 조국에서 만나요"라며 북측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하던 탐사단 노연희(계명대 38) 씨는 "가슴이 벅차 오르다"며 끝내 눈물지었다.

남북 청년들 벽을 허물다

저녁엔 환영연회가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리복남(35) 안내원 선생은 "동무"라고 친근함을 표시하며 "이러고 파병에 대한 남북 여론은 어떻습니까?" "요즘 남북에 수재파는 사라졌습니까?" 등 남북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4살 난 딸이랑 자랑하듯 하고 2년 반의 연애도 결혼에 성공시킨 성공담을 전해주기도 했다.

평양 2일

전국에서 모여드는 묘향산
평양에서의 첫 아침을 묘향산 탐사로 시작했다. 사선에서는 '묘향산이 아름답지만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이 아름답지는 않으나 웅장하다면 묘향산은 아름답고 웅장한 산'이라고 했다.

진귀한 선물로 가득한 곳

묘향산에서 처음 간 곳은 국제친선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해 둔 곳이다. 신발 위에 버선을 신고 사진 역시 찍을 수 있었던 그곳의 규모는 엄청났다. 전시된 선물들 1점당 1분씩 본다면 1년 6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숫자다. 하루에 2천여명의 국내 참관자와 외국인들도 하루 16팀은 온다고 한다. 리명일(31) 해설강사는 "관람은 한 외국순례는 우리 조선이 고립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벅다는 많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습시다."

동명왕릉과 정릉 등

과사에서 만난 보은 동명왕릉을 직접

만났다. 웅장한 소나무 숲 가운데 자리잡은 동명왕릉 근처에서 유물, 음식점을 찾아볼 수 없다. 남북과 달리 전혀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다. 동명왕릉 근처에 금강역이 발견됐을 때도 유적보호를 위해 개발을 포기할만큼 관리가 철저하다.

북측 해설강사 분이 남녘에 가고 싶은 곳을 없을까? 리명일(34) 해설강사는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명왕릉 뒤편에는 평양공주와 모달장군의 주인공들의 실제 무덤도 볼 수 있다.

평양 3일

눈앞에 펼쳐진 백두산의 광활함에 압도되다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은 40km 이상의

이글나부 숲이 펼쳐진다. 백두산을 20km 앞두고

더 이상 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광활한 대지가 펼쳐졌다.

남측이 놓지 못한 한 학계의 논

은 "우"하

는 갑탄사만

연발할 뿐이

다. 안내원

선생이 멀리

보이는 천지

를 가리켰

다. 김일성

주석의 친

필을 새겼

다는 혁

명의

성산, 백두산'이란 글이 보인다.

사람들은 카메라 속에 자신의 감동을 담기 바빴다. 탐사단 이정선(부산외국어대 00) 씨는 "이 감동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민족의 정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백두산의 정기에 다들 압도당한 것이다. 일행들이 천지를 향해 모여 섰다. "백두산아!!" "조국통일만세!!"

천지 아래서 합숙하며 10년째 백두산을 찾는 이들에게 경의를 하고 있다는 탐사단 유순복(26) 씨는 "청년학생들의 통일열의가 드높아 통일이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며 웃음을 지었다. 백두산의 전바람에 실려 나보다 훨씬 들어 보였지만 군복까지 갖춰 입고 통일의 뜻을 밝히는 그녀의 모습은 투사와 같은 강력한 면이 있었다.

새롭게 세우진 단군릉

실제 단군의 유골이

맞는가에 대

한 학계의 논

란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 그

곳, 지난 94년 개

건한 단군릉을 찾

다. 도로 밖 멀리서

도 보이는 단군릉

의 규모는 대단하다. 대

대석으로 김일성의

장군상을 본 파와 피

라미드 형식으로 통

을 짓고 네 모서리에

대석은 눈의 돌변과

10개의 대리석으로 이

뤄진 돌은, 청동기 시

대의 상징을 청동기를

세웠다.

여기서 다음날 개천

절 행사가 열린다. 해설

에 나선 북측 역사학

박사는 "역사연구의 기

본 원칙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에 기반하는 것"이

라 밝히면서 "단군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며 불굴된 단

군의 유골이 5천년 이상 된 것이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의 함께 있어 개와 고인돌이 발견된 대동강 유역도 문명 발생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찾다

아침기도 캠퍼스를 둘러보거나 학생들의 공부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학내에서의 행적을 전시물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에게 선물로 준비해온 단원적 성비 탁본을 건네며

대규모 건설로 청년의 힘 확인하다

청년영웅도로를 지나 남포로 향했다. 청년영웅도로는 북측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도로였다. 안내원 선생은 "조국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스스로 거리에 나와 1년 8개

월간대 너비 72m, 길이 420km에 되는 도로를

기게수단 없이 돌돌을 지고 만든 도로라 열정

적으로 설명했다. 청년도로 오른쪽에는 청산리가 보인다.

학술 교류를 제안

기도 했다. 김세동(건국대 총학생회장 98) 씨는 "본국의 국

문과, 중앙문화, 정치외교학과, 중동생

물학과, 행정학과가 김일성종합대학과의 학

술교류를 준비중에 있다. 발파중에도 학술 세

미나기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에는 북측의 답이 있을 거라한다"고 밝혔다.

건국대와 같이 대학간의 교류가 앞으로 이어

져 대학생들의 학술·문화교류가 필요하겠다.

대동강변에서 만난 한기로온 시민들

강변에서 한가로게 낚시하는 이들, 보트놀이

하는 남녀, 미술수업을 나온 평양미술대학 학

생들, 그들의 그림을 지켜보는 평양 시민들, 소

송나와 점심을 먹는 아주머니와 결혼사진을 찍

으며 나온 예비 신랑신부, 그들을 구경하는 빨

간 손수건을 맨 소학교 아이들로 대동강변은

복잡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연광정이지

만 신기할만큼 깨끗했다. 유유히서 갔다. 대동

강을 사이에 끼고 동서로 나뉘는 평양 정경

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아슬아슬 가르북 평양교예단

청년호원 방문에 있는 교예단에서 북측

사람들과 함께 교예를 볼 수 있었다. 아슬아슬

한 교예 본 아니라 재밌는 간막이 관례와

호흡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스케이트를 탄

노인부부의 애호소나 통장하고 아내를 피해

이탈소로 도망간 남편은 이발관의 재단으로 의

자가 되면서 생기는 예포소드를 보여주었고 있

다. 주북자들은 실컷 웃고있는 젊은 간막이

서도 미소를 잃지않아, 토지정리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 5일

글·사진 :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WTO 개방 ·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전대기원 공동광고

No! WAR TO

WTO 개방과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가 또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세계화 명목 아래 펼쳐지는 경제 개방, 명분 없는 미국의 전쟁 놀음전에 이라크 파병, 우리 국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파병반대 세계화 반대 '열풍', 온 국민이 함께 '돌풍'으로 약아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2003 왕산 피스컵’의 열기속으로...

학생들의 함성으로 왕산은 ‘들썉~ 들썉’

윤인배교수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2003 황산 피스업'이 지난 22일(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제1전은 '전경남'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짜러브 장갑을 반입하고 화물차를 횡단하는 마음을 담아 내다 준다. 학내의 모교가 아니라 타교전으로 오는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4개 종목 개입연으로 힘 있는 3종경기, 공가야전이 진행된다. 경기장 밖에서는 노천극장에서 6부서 반전경과 아영호재가, 매일 오후6시에 학생회 홈페이지(www.husanpi.com)에서는 '오늘의 베스트 장갑을 찾자!'의 디카사건 경연대회가, 후폭풍 일에서는 구수학자 부호산자 미련을 위한 티셔츠 판매가 진행된다. 피박식은 오는 30일(금)에 끝난다. 윤인배교수 관내에서 열리는 것은 27일 경인 평화가 찾아 보인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가을이다. 학생들의 옷
길이와 색깔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는 24
일(수) 오전, 하늘에는 '2003 완산 피스컵'을
알리는 현수막이 학생들을 반기고 있다. 시간
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 곳곳에서는 함성과
응원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보산업공·전자정보공학 (03)군은 "제전에 참가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참가하는 사람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관중들이 없고 응원도 안되다 보니 대회가 썰렁하고 재미가 반감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열띤 응원전으로 학교가 '들썩 들썩'

[illegible]

리토 원인을 했다. 양면 선수가 번갈아 골을
치고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다. 7번째에 가서
야가 승부를 가릴 수 있었다. 진중봉은 이를
일찍게 승부처기의 징크스를 이기지 못하고 졌다.
진중봉과 박정호는 '결합이 원인이었다'. 김
은의와 함께 바둑도 선수들을 위했다. 김
원종(정보산업공) 전 정보보안과 09군은 "지
능에는 졌어도 선배들과 후배들이 하나가 된
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폰트도 랜즈를 잃어 버린 그는 "형사도재"에 한
조를 잃어 버리며 학교측에서 배상 안해주어
요"라고 제10기는 질문을 냈다.

오래 2시간 '우리'는 하나다' 용기를 내
 '나'라는 소리가 학교 전체에서 들렸다. 교
 생들과 함께 학교 앞에서 플란디언의 캠프
 류타워를 향해 가기를 계속하였다. 점근근
 으로는 플란디언어를 말하는 현수미가 눈에
 왔다. 시험 진행과정보다도 플란디언의 음악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거기서 캠프류타워의
 소리를 들으며부터는 플란디언의 음악을 들
 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영숙(동명중·플란디언
 10학년)은 "미국 경기에서는 저서 아메리칸 우먼
 밴드, 저서 후배와 선배가 플란디언은 볼스
 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다' 있어서 기쁘다'고 환
 하게 미소를 지었다. 몇몇이 이 기념품과
 은 날이었던 한 번에 학생들의 팔걸게 익은
 굴에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우리는 하나다! 용기를 내어라!”

서울에 바람이 불어오는 20일(금) 오전 11시경, 이른날 오전 운동장에서는 낯익은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 용기를 내어라!" 바로 어제 농구장에서 만났던 풀타임 여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다. 풀타임여고 응원색에는 교수님 뿐만 아니라 수위여고에도 불수가 있었다. 풀타임여고와 여고대여고의 결승전 못지 않은 농구시합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우여고와 전년도 발리우승팀인 여고는 부딪감으로 풀타임여고 선수들을 얻어내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해 보였다. 풀타임여고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면서 점수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대우여고의 공격이 시작

[illegible]

함께하는 피스컵이 되기를..

용인배움터에서는 '2003 왕산 피스컵'의 열기가 식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용인배움터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는 피스컵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수업과 공부에 시달렸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 버리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 갈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박은희 기자
@hanmail.net

- 학회를 찾아서 2

PnP 로봇학회

그들의 키워드 열정과 개척

로봇학회는 각종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마우스, 로봇축구, 모바일 로봇 등의 마이크로 로봇과 자율이동로봇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동아리이다.

지난 99년 '미우스 학회'를 모태로 하는 이 로봇학회가 'Passion and Pioneer'의 약자를 딴 'PnP 로봇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지난 2000년 3월 부터라고

그해 정식 창업 동아리로 인정받은 이래 2000년 10월 27일 한양 기능로봇경진대회에서 서 연구생, 인강을 수상하고 2002년 5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대학생 창업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하는 등, 모두 총 10차례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실력과 동아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정기적인 세미나에서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창업 경연대회 참가를 준비하기도 하고, 매년 2월 14일 개최되는 공대 학술회와 같은 학내 발표회 기회를 활용하고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바른 인성을 보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우수 창업대회를 해외인사 초청 등 이념도 선정돼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에서 19일간 행사추진체 공과대학(MIT) 대학과 MIT와 등을 거쳐 개최돼 였다.

지난 20일 대에서 벤치마킹사와 대학교 창업대회는 참가하는 프라임비전에 참가하여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참가와 동시에 전자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μm^2 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하고 있을 듯.

현재 화회원을 모집중인 PnP의 화회장인 권한준(정보산업공 디지털정보공학과 97)군은 "학회 이름이 열정과 개척자인만큼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화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로보트학회에 관심있는 디지털정보공학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모집은 오는 10월 10일 정보산업관 316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수생내역

- 2002년 3월 : 교과 차임업10월 선진화제 우수010월 선정
- 2002년 10월 : 제 2회 한국직업보통직업인 연구성과 인정상을 수상
- 2002년 3월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창업10월 공모전 우수 010월로 선정
- 2002년 3월 : 중소기업청 신년 우수 창업자대회에서 우수 신규 동인10월 선정
- 2002년 5월 : 제1회 전국 종합직업인 선포식 대경상 수상10월 우수 수상
- 2002년 8월 : 제4회 전국 자영업자포럼 대경상 수상
- 2002년 11월 : 중소기업청 하반기 창업10월 선진화제 우수 5위 수상
- 2002년 5월 : 제1회 중소기업 종합지원서비스 대상 창업동인10월 경관대 우수수상
- 2003년 8월 : 중소기업청 신년 우수 창업자대회에서 우수 신규 동인10월 선정
- 2003년 대경상 : 중소기업청 종합지원서비스 대상 창업동인10월 경관대 우수수상

 우리말 이야기

이판사판

'이판사판'은 한자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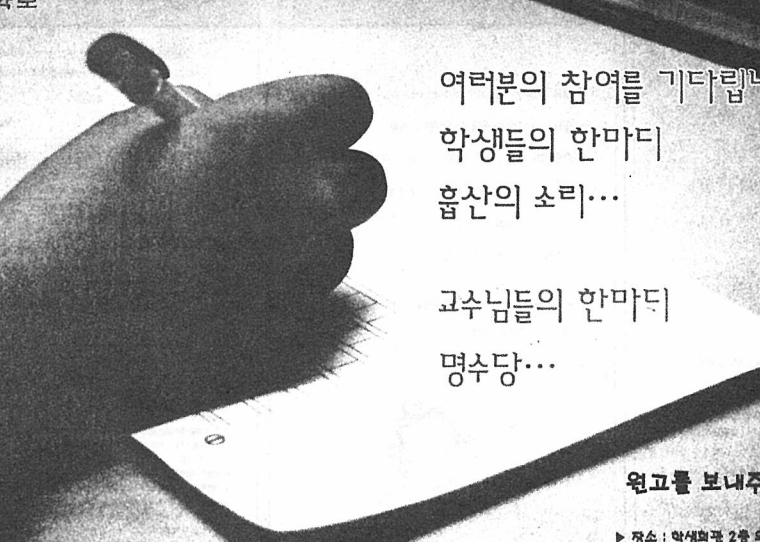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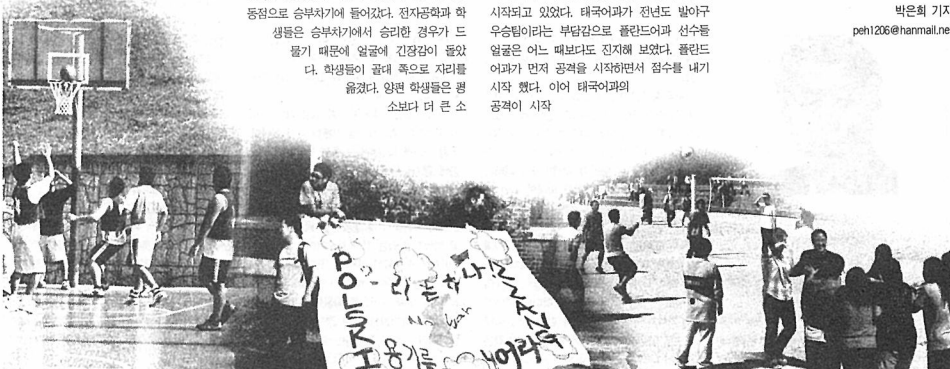
유래를 살펴보면 불가에서 쓰는 '이광종', '사광종'을 한결같이 이르는 말로서, 만리 '이광종'을 불경 연구와 실천에 열심하는 중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광종'은 절의 운원 및 절내다 행장을 맡아보는 중을 가리키는 말인데, 뒤에 이 말보다 어지간히 뽀로써 뜻이 변하여 유췌작죽 엉망이 되었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같이 지금은 감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모두 '고골'이라고 했습다. 이 '고골'은 마치 '코'에 '골'이 덧붙여져서 생리자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은 '코'에 '골'이 있다는 표현이다. 즉 '코'에 열이 난다는 뜻

이요. 이전엔 ‘꽃’이었습니다. ‘코’를 뜻하던 옛말인 ‘괴’에 ‘불’이 붙었던 것이네. 원소문화를 가 되 ‘꽃’이 되고 다시 뒤의 ‘불’이 편소로 되어(마치 ‘냉’가 실제 발음으로는 ‘냉’가 되듯이) ‘고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꽃에서 와서 한자어인 ‘감’가 이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감’란 한자말은 ‘벽박’, ‘사돈’, ‘사촌’ 등처럼 우 리 나라에서 만든 한자어입니다. 혹시 일본 어에서 온 것은 아니까 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어에서 는 ‘감’을 ‘홍사바리 홍 사바리’라고 합니다.

—우리들 연구회



민족지주언론
외대학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의 한마디
흡산의 소리...

교수님들의 한마디
명수당...

원고를 보내주세요.

▶ 장소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 전자우편 : bodeapress@hanmail.net
▶ 연락처 : 02-961-4132, 031-530-4112